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 세단 SM6(사진 위)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뽑은 '2017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QM6 역시 '2017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중형 SUV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2017 올해의 차 'SM6' 올해의 디자인상 'QM6' 시승기

놀라움의 연속 SM6, 탄탄함에 반한 QM6

SM6 1.5dCi, 중·저속 구간서 최대 토크 발휘
제원 이상의 가속력...연비도 무려 17.0km/L
QM6, 고속영역서 더 차분...탄탄한 주행 감성



르노삼성자동차는 2016년 내수 시장에서 11만1101대를 판매했다. 2015년 대비 38.8%나 성장했다. 르노삼성의 부활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성공이다. 급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SM6와 QM6다. SM6는 지난해 5만7478대가 판매되며 연간 판매 목표였던 5만대를 가볍게 돌파했다.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의 지형도를 바꿔놓은 엄청난 판매량이다. QM6 역시 지난해 1만4126대가 판매되며 중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판매량으로 입증된 상품성은 전문가들로부터도 인정받았다. SM6는 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2017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QM6는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으며 르노삼성자동차가 2관왕에 올랐다. 장거리 시승을 통해 SM6 dCi(디젤) 모델과 QM6의 매력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첨단기술·세련된 디자인에 가성비까지 뛰어난 SM6 dCi

SM6 dCi를 타보면 2.0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 가성비 정말 뛰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고출력 110마력, 최대토크 25.5kg·m이라는 제원표상의 출력과 마력은 어쩐지 부족해보이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

SM6 1.5dCi & QM6 주요 제원		
	SM6 1.5 dci	QM6 2.0 4WD
배기량(cc)	1461	1995
연료	디젤	디젤
변속기	자동 6단	자동(CVT)
최고출력(마력)	110	177
최대토크(kg·m)	25.5	38.7
복합연비 (km/L)	17	11.9
가격(만원)	2575~2950	3070~3470

면 불편함이 전혀 없다. 실제 주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저속 구간(1750~2750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추월 가속력은 충분한 편이다. 토크와 마력의 한계는 물론이다. 때문에 초기 반응 속도는 다소 둔한 편이지만 일단 스타트를 하고 나면 최대출력 110마력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가속력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게다가 연비는 무려 17.0km/L다.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요즘 SM6 dCi의 매력은 더욱 돋보인다. 편의사양도 가솔린 모델과 차이가 없다. 랙 구동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R-EPSS)을 비롯해 오토 스톱·스타트 시스템, 전방 LED 방향 지시등, LED 리어 콰터라이트 램프, 좌우 독립 풀오트 에어컨 등이 기본사양이다. 최상위 트림 LE에는 멀티센스(스드라이빙 모드 통합 제어시스템), 7인치 컬러 TFT 디스플레이 가변형 클러스터, 엠비언트 라이트, S-Link 7인치 미러링 시스템, 마사지 시트 기능 등 호평받은 SM6의 첨단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젊은 감성, 탄탄한 주행성능 갖춘 QM6

최근 시장에 선보인 국산 SUV들 중 가장 신선한 디자인을 갖춘 것은 QM6다. 심플하지만 젊고, 분명 국산 차지만 수입 SUV로 보일만큼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다. 30~40대 젊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다.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은 쉽게 질리지 않고, 보면 볼수록 매력에 더해진다. 실제 디자인도 경쟁 SUV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심플하다. 8.7인치 S-Link 디스플레이로 대부분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5가지 색상과 밝기 조정이 가능한 엠비언트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실내 분위기도 쉽게 바꿀 수 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를 선호한다면 만족할 것이다.

주행 성능은 기대 이상이다. 확실히 유럽 SUV의 탄탄한 주행 감성을 가지고 있다. 산타페나 쏘렌토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중후한 감각이라면 QM6는 조금 더 지면을 타면서, 단단한 느낌이다. 4륜구동 시스템인 ALL MODE 4X4-i는 확실히 믿음직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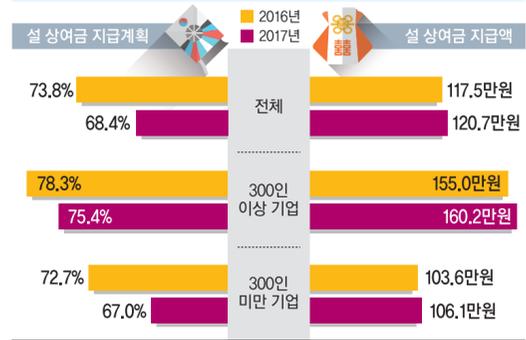
저속 구간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거슬리지만 중·고속 영역으로 들어서면 조용해진다. 특히 고속으로 갈수록 차는 더욱 조용하고 차분하게 달릴 줄 안다.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감과 급가속 능력, 제동력이 뛰어나서 펀드라이빙도 충분히 소화한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 500km 구간에서 평균 실연비는 12km/L를 기록했다. 공연 연비(11.9km/L)와 큰 차이는 없다. 연비는 경쟁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차를 믿고 달릴 만했고, 운전 피로도도 적었다.

원성준 기자 sereno@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2017년 설 상여금 및 상여금 지급 계획은?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3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68.4%만이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3.8%에 비해 5.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75.4%,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67.0%로 각각 전년 대비 2.9% 포인트와 5.7% 포인트 줄었다.



쉐보레, 이디트로닉 적용 '스파크' 승용 밴 모델 출시



쉐보레 '스파크'

쉐보레가 고효율 첨단 변속시스템인 이디트로닉(Easytronic)을 적용한 스파크 승용 밴 모델을 출시했다. 스파크 이디트로닉 승용 밴은 기존 승용 밴 가격(M/T기준 승용 밴 배이직 992만원·승용 밴 1015만원)에 80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쉐보레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첨단 변속시스템인 이디트로닉을 스파크에 적용해 경제성과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스파크에 적용된 이디트로닉은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변속 시스템으로, 2중 보통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별도 클러치 페달 조작없이 쉬운 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호타이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지원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14일 올해 5화째를 맞는 '한국-베트남(이하 한-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과 자녀에게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 금호타이어가 2013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한-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고 베트남 모국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금호타이어가 왕복 항공권 및 현지 체재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베트남이 모국인 다문화가정 10가족(39명)은 금호타이어의 지원으로 오는 20일까지 총 6박7일간 각 가정 별로 고향 방문을 통해 친정 나들이에 나선다.

현대자동차, 대형트럭 판매 우수사원 시상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13일 대형트럭 판매 우수사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대형트럭 판매 우수사원 시상 한 해 동안 대형트럭을 가장 많이 판매한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로의 판매 노후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총 157대의 대형트럭을 판매한 경기트럭지점 송재열 차장이 '2016년 대형트럭 판매왕'의 영예를 안았고, 143대를 판매한 서부트럭지점 강병철 부장과 123대를 판매한 광주트럭지점 김진환 부장이 각각 판매 우수자로 선정됐다.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1년 동안 대형트럭 157대를 판매하려면 약 하루 반나절 만에 1대 이상을 판매해야 달성 가능하다.

롯데카드, 연말정산 제외 항목 L포인트 적립 이벤트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이벤트

롯데카드는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7 시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요금·보험료·해외이용금액과 생활밀착 업종인 교통비·병원비 등 5개 항목에서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2%, 최대 30만원까지 L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사다. 롯데 개인 신용카드 소지자면 누구나 3월31일까지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이 차등 적용된다. 연간 1000만원 이상 이용하면 5개 항목 이용금액의 0.7%, 3000만원 이상은 1.5%, 5000만원 이상은 2%가 적용되며, 포인트는 2018년 2월 말 지급된다. 롯데카드 측은 "2011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6만명이 참여해 약 135억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았고, 지난해에는 약 17만 명이 응모해 평균 3만8000원씩을 포인트로 돌려받았다"며 "롯데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13월의 보너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BC카드, 환경부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할인 MOU



채종진 BC카드 부사장(왼쪽)과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BC카드가 환경부와 함께 그린카드의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C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 구매·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르, 지난 2011년 7월 출시된 이후 1500만장이 발급됐다. 최근 서울 광화문 소재 트윈트리 빌딩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BC카드와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카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100km 주행 기준의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을 기존 요금의 절반인 2759원으로 인하했다. 이는 동일한 거리 주행시 필요한 휘발유(1만1448원) 및 전기(7320원) 결제 금액 대비 최대 24% 수준이다. 특히 BC그린카드에 결제하는 고객들은 2018년 1월초까지 인화된 요금의 50%인 1379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무제한 사용·무조건 적립...카드 포인트가 풀린다

카드업계 2017 새해 화두는 포인트 포인트 무제한 사용 약관 개정 돌입 적립 특화 카드·통합 조회 서비스도



직장인 강혜선(32)씨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6만 포인트(1포인트당 1원·16만원 상당)를 모았다. 하지만 정작 포인트를 쓰려고 하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포인트를 모아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비율에 제한이 있던 것. 강씨는 "포인트 일부에 현금을 얻어 상품을 구입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17년 연시를 맞아 카드업계 아이러니로 '포인트'가 뜨고 있다.

올해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까지 포인트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우라·KB국민·롯데카드 등 3곳 뿐이었다. 나머지 BC·하나·삼성·신한·현대카드는 앞서 강씨의 사례처럼 포인트 사용에 있어 비율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금융감독원 결정으로 BC·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삼성·신한카드는 오는 4월부터 신규 카드는 물론 기존 카드 포인트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타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 구조가 달라 하반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타사의 경우 포인트 적립시 적립금에 대한 부담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일정비율로 나눠서 분담하는데, 현대카드는 카드사가 100% 부담하고 나중에 포인트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가맹점과 반반씩 나누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0% 사용 가능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하반기에 신설하겠다는 게 현대카드 측 설명이다.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가칭 C포인트)를 제정하고, 기존 포인트(M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전환 비율은 1.5대1을 고려 중으로, 15만 M포인트가 있으면 10만 C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번에 카드 포인트 조회 가능

이렇듯 카드 포인트가 이슈화 되자, 포인트 특화 카드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리브 메이트 카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에 이어 출시되는 포인트 적립 특화 상품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0.7%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또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포인트 추가 적립과 해외 이용 캐시백, 영화관과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cardpoint.or.kr)'가 눈에 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16일 오픈하는 '카드다모아' 서비스도 있다. 각 카드사의 대표 상품을 선별해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카드상품 통합조회 시스템이다. 각 카드사마다 3개의 주력 상품을 올려놓을 예정으로, 고객들은 해당 상품의 특징과 혜택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어 상품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청록 기자 jay@donga.com